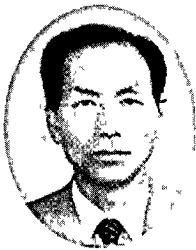


# 孝는 人倫道德의 根本이요 天倫의 攝理이다.

金 基 寅



## 一. 효(孝)의 뜻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일로 풀이된다.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효성(孝誠)과 경로의식(敬老意識)이 높고 예의(禮儀)가 바르기 때문에 일찍이 동양예의지국(東洋禮儀之國)으로 자부(自負)하고 외국인의 칭송을 받아 왔으나 오늘날의 세대는 많이 변했다.

우리 민족은 삼강(三綱) 오륜(五倫)에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자유친(父子有親)을 삶의 귀감으로 살아왔다. 그러므로 이를 모르면 금수(禽獸)와 같다고 하여 사람대우를 받지 못했다. 부자간의 사랑의 윤리는 천부적(天賦的) 곧 하늘로부터 온 것이므로 부자간에 친(親)하게 됨은 하늘의 섭리(攝理)이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 정성으로 부모를 섬겨야 한다. 효(孝)는 천은(天恩)에 바탕을 두고 인격(人格)형성에 근본이므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야 한다. 효(孝)는 형제간에 우애(友愛)를 낳고 동족애(同族愛)와 협동심(協同心)으로 인류평화(人類平和)를 이룬다.

이와 반대로 불효(不孝)는 인간도리와 천도(天道)를 어기는 것이다. 효경(孝經)에 신체발부(身體髮膚)는 부모에서 받았으며 몸을 상(傷)하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 효(孝)의 시본(始本)이요, 이름을 후세에 남겨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효(孝)의 끝이라 하였으니, 효(孝)는 어버이를 섬기는데 시작이

요 애국심(愛國心)이 중간이요 자신이 독립해서 진리(眞理)를 행하는 것이 효(孝)의 마지막이라 하였다.

만일 비리(非理)와 부정(不正)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사회봉사해도 불효(不孝)에 속한다.

효(孝)는 살아 계시는 부모에게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祖上)과 시조(始祖)까지 정성(精誠)이 미치며 조상(祖上)을 낳게 한 그 은덕을 추모하여 하늘에까지 효성(孝誠)이 닿아야 한다고 한다.

공자(孔子)가 가라사대, 효(孝)는 가정윤리로부터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로 확대되어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요도(要道)이다.

효(孝)는 윤리적 차원(倫理的次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본성(人間本性)의 생명을 근기(根基)로 함으로 철학적 영역(哲學的領域)과 조상(祖上)의 근원인 상제(上帝) 즉, 하느님께서 알아야 근본지효(根本之孝)가 됨으로 종교의 영역까지 내포(內包)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사회화, 대중화하고 인류 공동의 생활화하는 것으로 정치적 영역(政治的領域)과 사회적 경제적 영역(社會的 經濟的 領域)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효(孝)는 인간의 철학적 가치를 들어내는 첫 열매라고 말할 수 있다.

## 二. 효의 유래(由來)

환국(桓國)시대의 오훈(五訓)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민족이 일찍이 효사상(孝思想)을 중요시 하였다. 공자(孔子)는 무릇 효(孝)는 덕(德)의 근본이며 인(仁)을 이루는 근본이며 자비(慈悲)와 박애(博愛)와 충(忠)을 이루는 근본(根本)인 것이다. 그러므로 효도(孝道)는 백가지 행실(行實)의 근본이요, 선(善)의 원초(原初)로서 천만행실(千萬行實)의 기초로 삼았다. 그러므로 효도하지 않고 타인(他人)을 사랑해도 덕(德)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 孝는 人倫道德의 根本이요 天倫의 攝理이다

### 三. 효(孝)의 실천사상(實踐思想)

효(孝)는 일상생활을 조화(調和)있게 하는 핵심(核心)이 되어 있으며 효행(孝行)은 인덕(人德)을 기르는 근본으로 실천해야 한다.

효행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다운 기본 행동철학(行動哲學)이며 요체(要諦)인 효(孝)에 예(禮)를 갖추어 시행(施行)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효를 실천함으로써 인생의 참 삶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효도(孝道)하고 우애(友愛)하여 공경(恭敬)하는 사람은 사랑, 자비(慈悲), 인(仁), 박애(博愛)를 이루는 근본(根本) 바탕이다. 그러므로 부모생전(父母生前)에는 예(禮)를 다하여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모셔야 한다. 사후(死後)에는 예(禮)로서 정성으로 장례(葬禮)를 모셔야 한다. 제사(祭祀) 날은 목욕제계(沐浴齋戒)하고 정성을 다하여 모셔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효를 용돈이나 음식으로 효를 다한 것으로 알기 쉬우나 참된 효는 부모를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여 봉양(奉養)하고 뜻을 받들어 마음을 편하시도록 모시는 것이 진실한 효행(孝行)이다.

### 四. 부모를 섬김에 10가지 지켜야 할 덕목(德目)은 다음과 같다.

- ① 부모님이 평상시 거처하실 때 편안하게 해 드리고 - 거(居)
- ② 마음으로 극진함을 다하여 섬기고 - 치(致)
- ③ 바르고 깎듯이 공경하고 - 경(敬)
- ④ 항상 좋은 음식으로 잘 봉양하고 - 양(養)
- ⑤ 기쁘게 즐겁게 해 드리고 - 낙(樂)
- ⑥ 병환(病患)이 나시면 지성(至誠)으로 간호하고 약과 치료를 받도록 정성을 다한다 - 우(憂)

- ⑦ 상사(喪事)를 당하면 슬픈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모시고 - 상(喪)
- ⑧ 애통(哀痛)하는 마음으로 지난날 부모님이 하신 일을 생각한다 - 애(哀)
- ⑨ 제사 날을 맞이하여 망극(罔極)한 심정으로 과거를 회상하며 아버지의 덕업(德業)을 자손에게 가르치고 - 제(祭)
- ⑩ 엄숙히 공경하고 삼가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매사에 정성껏 모셔야 한다 - 엄(嚴)

五. 효는 인간의 생명에서 우러나는 도리(道理)로서 생리(生理), 성리(性理)인 것이다.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은 천륜(天倫)으로 우러나는 사랑이므로 희생적이며 조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무한의 사랑이다.

아버지의 기혈(氣血)을 이어 받아 새 생명이 잉태되어 어머니는 태중에 고통과 산고(産苦)를 감내하고 양육하고 교육을 시켜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들의 성공을 기원하며 위기에 빠질 때 생명마저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천은(天恩)을 자식이 갚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모성애(母性愛)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마음속 깊이 인자(仁慈)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부성애(父性愛)다.

六. 날로 가속화되는 물질문명은 쾌속한 교통통신의 혁신은 컴퓨터 등 신기한 생활필수품의 개발 등 문명의 혜택을 만끽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문화가 뒤따르지 못하여 온갖 폐단이 늘어나고 있다.

각종 산업의 부작용으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됨으로써 대기(大氣)와 식수(食

■ 孝는 人倫道德의 根本이요 天倫의 攝理이다

水)마저 오염되어 못 생명체가 멸종위기에 빠지고 인류의 생명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영국 리즈대학의 크리스 토머스(Thomas) 박사 등이 영국과학잡지 네이처(Nature) 최근발표에 의하면 지구난방화 「기후변화에서 오는 멸종위기」라는 제목보고에 의하면 “50년 내 동식물 4분의 1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환경보존론자들은 이 지상에 약 1,400만종이 살고 있으며 그 중 4분의 1종이 지구 난방화로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는 동양예의지국으로 외국인의 칭송을 받았으나 오늘날의 세태는 많이 변했다.

경로효친사상은 증병을 앓고 남녀 성문란, 각종퇴폐풍조는 그야말로 목불견(目不見)이다.

오늘의 세태는 황금만능풍조, 자유방종, 육신의 쾌락, 극도의 이기주의와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재산범죄와 끔직한 흉악범죄가 급증하고 심지어 친부모도 비위에 거슬리면 폭언욕설은 물론 존속살인사건(尊屬殺人事件)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말세(末世)라 해도 과언(過言)이 아닌 줄 안다.

## 七. 결혼(結婚)은 일가친지를 모시고 백년가약(百年佳約)을 서약함으로써 엄숙하고 성스러워서 옛부터 인륜대사(人倫大事)이다.

인간의 육신은 100년을 넘기기 어려우나 자식(子息)으로 이어지므로 곧 영생(永生)길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나라는 매년 이혼율(離婚率)이 급증하여 세계적으로 수위(首位)에 오르고 있어 이로인한 폐단이 크다.

이혼으로 인하여 죄없는 자녀들이 희생되고 가정불화로 부모님께 불효하고

자살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옛부터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으로 가정이 파산되면 건전한 사회와 복지 국가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난날 8·15 광복이후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인구정책으로 산아제한을 국가시책으로 권유했으나 오늘날의 세대는 많이 변했다.

가문과 문중에 관한 소중함을 모르고 일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과분한 사교육비(過分한 私教育費), 치열한 생존경쟁 등의 이유로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남녀간에 결혼기피풍조와 결혼 후에도 임신을 기피하거나 아들딸 구별없이 자녀를 하나만 출산함으로 인구 감소현상이 오고 있어 국가시책으로 출산(出産)을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자녀를 왕자나 공주처럼 과보호하여 유아독존으로 버릇이 없게 되어 부모품안에서 참된 인성교육(人性教育)이 되지 않으며 오늘의 학교교육마저 치열한 입시경쟁, 능력과 자격 등 지식위주로 치중하여 청소년들이 참된 인간교육이 부족하여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적응력이 떨어짐으로써 부작용이 심각하다.

무엇보다 기성세대가 인륜도덕(人倫道德)을 솔선수범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세상을 탓하거나 환경과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냉정히 반성하고 우선 내 집안, 문중부터 경로효친(敬老孝親), 인륜도덕(人倫道德)을 솔선수범하여 혼탁한 세파에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고요히 천명(天命)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금산한약방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115-7 ☎ 053)257-0771)